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히브리서 11:8-12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믿음의 뿌리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75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전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기 이전의 과거 생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에 관심이 많습니다. 믿음과는 상관없는, 세상적 명예를 흠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보다 교회의 집사, 장로, 목자, 팀장이 훨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다 여겨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명문가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 큰 매력적인 요소를 지닌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류문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 11:8)**

믿음은 무엇일까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창 12:4)**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갔지만, 롯이 따라간 것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갔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위기가 찾아오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 위기를 견뎌 냅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의 사람은 겉은 화려할 수 있으나 결정적 위기 순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를 보고, 혹은 교회를 보고 쫓아 다녀서는 안됩니다. 사람을 보고 따라다니면 반드시 실망과 상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에게만 우리의 신앙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 12:1)**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온 세상적 삶의 방식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를 가지는 것도, 종교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모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진 세상적 즐거움과 가치들을 모두 포기할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2)**

성경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곧 복인 것입니다.

복은 환경이나 사물을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된 사람이 곧 복을 전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믿음의 복'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도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 구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430 년이 지난 후, 모세를 통해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해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딜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시작이 순종이었다면, 신앙의 클라이맥스도 역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 11:19)**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일 것입니다. 살아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설명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살인일 뿐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이 되지 않는 이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큰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다면, 그 이삭이 설령 죽음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순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22-23)**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어떤 신앙적 모습도 순종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베이커라는 학자가 순종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순종은, 하나님께 뒤를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사무엘, 다윗 등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순종으로 인해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담, 가인, 고라, 사울, 아나니아 등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함으로 복 받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불순종으로 저주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결단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차이가 어느 때에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2.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만한 신앙적 모습을 발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어 봅시다.
3. 아브라함을 보면, 인생의 시작도 순종이요, 인생의 절정도 순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은 복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고, 혹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숙제'처럼 남겨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해 봅시다.